

“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머물고 싶은 대학”

GIST, 법무부 ‘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’ 운영기관 선정

-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 위한 맞춤 지원 본격화... 주거 및 생활 인프라부터 교육·연구 활동까지 실질적 지원 강화로 외국인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‘글로벌 캠퍼스’ 조성
- 임기철 총장 “외국인 구성원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글로벌 정착 생태계 만들어 나갈 것”



▲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GIST 캠퍼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법무부가 주관하는 ‘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’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**됐다고 31일(목) 밝혔다.

이에 따라 GIST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**체계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‘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’은 법무부가 새롭게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**한국 사회의 제도, 법질서, 문화, 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정착을 지원**하는 제도다.

공공서비스 이용 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, 외국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.

GIST의 이번 선정은 최근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 기조 속에서, **연구중심대학이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**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.

GIST는 외국인 유학생이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**학업과 연구에 집중**할 수 있도록 **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**해 오고 있다.

▲내외국인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소통 행사 '**외국인 문화의 밤**' ▲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체험 및 교류 프로그램 '**GIST 동행 캠페인**' ▲해외 우수 이공계 대학생을 초청해 8주간 연구에 참여하는 '**글로벌 인턴 프로그램**' ▲내국인-유학생 1:1 멘토링을 운영하는 '**버디 프로그램**' 등이 대표적이다.

이 밖에도 ▲**한국어 교육** ▲**생활 오리엔테이션** ▲**행정 절차 안내**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구성원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.

GIST는 단순한 유학 환경을 넘어, 교육·연구·생활 전반에서 외국인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'**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**'을 제공하는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다.

임기철 총장은 "GIST는 **외국인 유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편을 덜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**"며, "이번 선정을 계기로 **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**"고 밝혔다.

이어 "박사후연구원 등 만 45세 이하의 신진 연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근 준공한 '**영 사이언티스트 빌딩(Young Scientist Building, YSB)**'과 같은 정착형 캠퍼스 인프라를 기반으로, 앞으로도 교육·연구·생활 전반에 걸쳐 외국인 구성원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**글로벌 정착 생태계**를 조성해 나가겠다"이라고 강조했다.

현재 GIST에서는 전체 학생의 약 10%에 해당하는 **외국인 유학생 169명**이 학사·석사·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, 전임교원 및 박사후연구원(Postdoc) 등 **외국인 연구자 74명**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.

이들은 전 세계 32개국에서 유입되어 GIST의 국제화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다. 올해 2월 열린 2025학년도 입학식에서는 **외국인 재학생이 직접 참여한 '글로벌 국기 게양식'**이 사전 행사로 진행되기도 했다.



▲ 지난 2월 27일(목) GIST 오룡관 정문 주차장에서 입학식 사전 행사로 국가별 대표 유학생이 참여한 30개국 국기 게양식이 개최되고 있다.